

현안보고 OR 2008-5-22



주한 외국
유학생 현황 및
다문화 인식에
대한 기초 연구

■ 작성자 ■ 정 미 경(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세계지역연구소)
■ 내용분의 ■ 한국교육개발원

Tel: 02-3460-0210, 0211

I. 연구 목적

1990년대 세계화와 국제화의 물결은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단지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 문화적인 변화도 동반하고 있다(박남수 2000, 진은영, 2007). 과거의 경제 활동은 물적 자원, 상품 및 서비스만 국경과 국경을 넘어선 거래로 통제와 제한이 단순히 이루어진 반면에 현재의 경제활동은 물적, 인적, 상품 및 서비스가 국경과 국경을 넘어 거래를 하면서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세계화와 국제화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문화적 차이와 이해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의 수렴 및 인정할 수 있는 국민의식의 문제에 직면하여 있으며(박남수 2000, 오지섭, 2007, 진은영 2007),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과정 추가 개편과 같은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장인실 2008, 김홍운외 2007).

대학의 경우에는 세계화와 국제화로 인해 기존의 국내에서 대학 간의 경쟁관계가 국제사회로 확산되면 세계의 유수한 대학들과 경쟁관계를 갖게 되었다.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는 국내 대학들의 유학생 비율 확대 정책을 내어놓았고,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박태호 2000, 노종희 2003). 그러나 양질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유학생 유치 전략이 과연 실효성을 띠고 있느냐는 아직 분명히 증명된 바는 없으나, 일부 언론 보도나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은 양질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단순히 다량의 외국학생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에 서 있어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디지털조선 2000, 동아닷컴 2007, 한국경제 2008).

국제화에 적응하고, 국내 대학의 국제화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일어나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로 대학이 유학생들에 대한 현황과 처우

그리고 국내학생들과 유학생간의 교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의 정책적 변화는 모순점을 앓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와 다문화 교육 관련 문헌자료를 신문, 연구 논문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둘째는 국내에 유학 및 연구를 목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학생, 연구 교원 및 교수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주로 어떤 국가들에서 어떤 형태로 유입되고 있는지를 출입국 관련 정량적 자료 분석을 한다. 셋째는 국내 대학생들이 외국 유학생 혹은 교원들에게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인터뷰를 통한 정성적 분석을 추가한다.

본 연구는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교육과 관련 입국 외국인 현황을 유학, 연구, 교수생 현황(국적, 과정 별)에 따라 분석하고, 둘째, 국내 체류 유학생에 대한 예우 현황 사례 (장학금 지급 현황 및 특별 프로그램 진행 현황분석). 셋째, 국내 대학생들과 교수진의 외국 유학생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일부 표본 축출을 통해 인터뷰를 통해 국내 대학의 다문화에 대한 접근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러한 현황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하여 제안한다.

III. 교육 관련 외국인 입국 현황

1. 유학 및 교육 종사 입국자 현황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수는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정주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007년 말 체류 외국인은 1,066,273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한다(법무부 출입국관리 통계분석 2007). 이는 1997년 386,972명에서 10년 사이에 175.5%가 증가한 상태이고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2012년에 150만명에 이를 것을 추정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방문·취업·동포의 입국이 233,699명으로 21.9%를 차지하고, 단순 노무인력이 169,988명으로 15.9%이며, 결혼이민자 110,362명(10.4%), 유학생이 61,836명으로 5.8%를 차지하고 전문 인력 29,081명으로 2.7%를 차지하는데 전문인력 내에는 교수 및 전문 연구 인력을 포함하고 있다. 영주자격자는 16,460명으로 1.54%를 차지하고, 투자 목적을 입국하는 외국인은 8,109명으로 0.76%이다.

<표 1> 교육관련 입국자 현황(단위, 명)

입국 유형	유학	산업	일반	국어	기타	교수	회화	연구
	D-2	D-3	D-4	D44	D45	E-1	E-2	E-3
2003년	12,335	52,878	5,914	-	-	2,393	22,345	3,359
2004년	18,934	38,150	8,501	-	-	2,853	23,134	4,725
2005년	25,635	41,365	10,257	-	-	3,204	25,014	5,406
2006년	35,979	48,203	15,883	553	60	3,500	29,263	5,838
2007년	52,204	8,881	16,581	10,756	888	3,993	35,457	6,766

출처: 법무부 출입국관리, 2008. 저자 재구성

교육과 관련되어 입국자의 비자 취득 유형을 살펴보면, 유학(비자: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국어연수(D-44), 기타연수(D-45)이고,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이다. 이중에서 대학과 직접적인 관

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학, 교수, 회화지도, 연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산업연수와 기술지도의 경우에는 대학과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일부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교육관련 입국자 현황을 살펴보면 유학의 경우가 2003년 12,335명에서 2005년 25,635명이고 2007년 52,204명으로 4년 전보다 320% 가량 증가했다. 직업으로서 대학이나 교육관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은 교수가 2003년 2,393명에서 2005년 3,204명 그리고 2007년에는 3,993명으로 4년 전보다 60% 이상 증가했다. 회화지도의 경우 2003년 22,345명, 2005년 25,014명 그리고 2007년 35,457명으로 4년 전보다 59% 가량 증가했다.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인은 2003년 3,359명에서 2005년 5,406명 그리고 2007년 6,766명로 4년 전보다 약 100% 가량 증가했다. 교육 관련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6개월 이상 장기 체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다. 2000년대 이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의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과 관련된 외국인의 장기체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¹⁾.

<표2>의 2007년도의 교육관련 입국자 중에서 유학을 목적으로 들어온 학생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계가 전체 95.24%를 차지하고 있고, 북미 1.96%, 남미주 0.35%, 유럽 1.89%, 오세아니아주 0.07%, 아프리카 0.49%를 차지하고 있다. 유학생의 95%가 아시아계이며, 이중에서 중국계가 77.5%를 차지하고 있다. 언어권으로 구별하여 보면 영어권인 북미 및 유럽 그리고 오세아니아가 3.92%를 차지하고 그 외의 언어권이 0.85%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관련 종사자를 살펴보면, 아시아계가 16.85%, 북미주계 59.56%, 남미주계 0.15%, 유럽계 13.31%, 오세아니아주 6.65%, 그리고 아프리카 3.46%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 관련 종사자는 북미주계가 59.5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1) 유학, 산업연수, 교수 및 연구 목적으로 비자를 받은 후 국내에 입국후에 외국인 등록증으로 재등록이 가능한 인원임. 외국인 등록증은 2년에 한번씩 갱신함.

중에서 회화지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북미계가 총11,872명으로 교수나 연구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인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오세아니아주계와 아프리카주계들도 대다수가 회화지도 목적으로 입국해 있다. 유럽계의 경우에도 회화지도를 목적으로 입국해 있는 외국인이 교수나 연구목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아시아계는 교수나 회화지도보다는 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해 있는 인원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2 참조)

〈표 2〉 대륙별(국적기준) 외국인 입국 현황(2007년 기준, 단위, 명)

국적	체류자격	유학	전문 학사	학사 유학	석사 유학	박사 유학	연구 유학	일반 연수	국어 연수	기타 연수	유학생총 계	교수	회화지도	연구	교육종 사총계
												E-1	E-2	E-3	
아시아주계	남(M)	18,634	128	759	339	219	1	2,095	7,291	302	29,7682	324	283	1,471	2078
	여(F)	17,717	151	699	298	82	0	1,471	6,636	253	7,307	183	945	289	1417
북미주계	남(M)	558	2	16	5	0	0	5	44	20	650	340	7,219	61	7620
	여(F)	458	3	11	3	1	0	3	14	34	527	83	4,653	5	4741
남미주계	남(M)	83	0	4	6	0	0	1	13	18	125	4	5	9	18
	여(F)	49	0	6	4	0	0	1	11	13	84	7	4	2	13
유럽주계	남(M)	414	1	22	12	2	0	14	71	67	603	205	1,409	367	1981
	여(F)	352	2	16	11	1	0	15	105	28	530	67	670	42	779
오세아니아주 계	남(M)	23	0	2	1	0	0	0	2	0	28	35	865	1	901
	여(F)	8	0	2	0	0	0	0	1	0	11	7	470	2	479
아프리카주계	남(M)	164	1	12	15	2	0	10	29	1	234	11	312	26	349
	여(F)	36	0	6	6	0	0	2	9	1	60	3	362	3	368
무국적	남(M)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여(F)	1	0	0	0	0	0	0	0	0	1	0	0	0	0
총계	계(T)	38,497	288	1,555	700	307	1	3,617	14,226	737	59,928	1,269	17,197	2,278	20,744
	남(M)	19,876	132	815	378	223	1	2,125	7,450	408	31,408	919	10,093	1,935	12,947
	여(F)	18,621	156	740	322	84	0	1,492	6,776	329	28,520	350	7,104	343	7797

출처: 법무부 출입국관리, 2008. 저자 재구성

2. 교육관련 외국인 현황 분석

위의 표1과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대학이나 교육계에 아시아계 유학생의 비율이 다른 대륙보다 높게 나타났고, 기타 대륙의 유학생은 5%이내에 불과하다. 반면에 교육에 종사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북미 유럽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교수나 연구목적보다는 회화지도를 위해 입국하고 있는데, 전체 외국인 종사자중 83%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성을 확보에 필요한 교수 및 연구 목적의 외국인은 전체 1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미 유럽 그리고 오세아니아 계열의 회화지도 목적의 외국인들은 영어 및 일부 선진국가들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국내에서 영어에 대한 교육열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각 대학에 설치된 어학원에서도 국내학생의 영어 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며, 한국어 과정은 외국인 상대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의 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국어연수가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중에 아시아계가 98%를 차지하고 나머지 2%가 기타 대륙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이다. 아시아계 국어연수자 중에 중국계가 8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러차례 언론보도²⁾에서도 드러난 문제이나 한국어를 배우려는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입국한 경우라고 파악할 수 있다.

유학생 비율에서도 아시아계와 기타 대륙이 가장 높으며, 그 외 언어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의 비율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교수 및 연구에 종사보다는 회화지도의 종사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으로 회화지도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주로 북미와 유럽 그리고 오세아니아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 “中 어학연수생 출석부 조작 체류연장 대학직원들 검거” 충청투데이 2008년 9월9일 제3면,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007#>, (2008년11월8일 접속); “어학연수생 출석조작 비자 연장, 편입 도움” 충청매일 2008년 9월9일, <http://pdf.hvnews.co.kr/2008/09/09/20080909-01.pdf>, (2008년11월8일 접속); “몰려오는 중국대학생들 한국에서 공부하자” 오마이뉴스 2007년 11월 2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54425, (2008년11월8일 접속)

II. 국내 교육관련 외국인에 대한 예우 현황

국내 대학생이 국외 연수 및 유학비용으로 소비되는 비용이 연간 2조 2000억원이데 비해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 비용은 200억원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 서비스 수지는 OECD 국가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적자를 내고 있는 국가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러한 적자를 최소화하고 국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2010년까지 5 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를 위해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각 대학에 유학생 유치 비율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그뿐 만아니라 교육과학부는 유학생 유치 비율에 따라서 국내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과연 국내 대학의 연구 풍토가 충분히 조성되었는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연구될 가치가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있는가? 교육과학부가 제시한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나 “유학생 비율 높이기”와 같은 것이 과연 국외연수 및 유학비용으로 지출되는 많은 비용들에 대하여 유학생 유치를 통해 흑자로 돌릴 수 있는가? 국내 대학들이 이를 실행하고 있는가? 교환학생 및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국내대학들이 쏟아 붐고 있는 장학금 및 복지 우대는 실제로 국내대학의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유학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흑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 유학생 비율 높이기 목표는 대학들로 하여금 또 다른 형태의 소비를 불러오고 있지 않나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유학생의 수가 증가할 수록 세계화 시대에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며, 유학생 정책은 국제 사회에서 친한 인사들을 확보하는 제2의 외교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학생 정책이 장기적으로 외교의 몫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우선 구축되어야하며, 유학생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예, 싱가포르의 경우 성공적으로 나

타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 국내 대학의 유학생에 대한 예우와 실제 현황은 어떠한지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및 지원에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유학생 유치 및 지원 현황³⁾

국내의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 형태는 ① 교환학생제도, ②인턴제도, ③장학금제도, ④산학협력 장학금지원 제도 등의 형태를 띠고 있다⁴⁾. 예를 들어서 유학생 유치를 위해 A 대학의 경우에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75%의 장학금을 제공하고, 영미 유럽권의 학생인 경우에는 100% 장학금을 지급한다. B 대학이나 C 대학도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외국인 학생들에게 일정 비율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외국 유학생 지원 현황에 대하여 D대학의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자. D 대학은 외국인 학사 지원자와 석박사 지원자에 따라서 등록금 면제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학사 외국 유학생 선발을 살펴보면 2008년1학기에 총 18명을 선발하였으며, <표1>과 같이 성적의 차이에 따라서 등록금중의 일부를 면제하고 총 35,533,000원을 등록비를 받았다. 석박사과정의 64명에게는 총 100,425,000원을 등록금을 받았고, 입학금은 면제이다. 100% 등록금 면제자는 전체 64명중에 19명에 해당되었고, 전체 82명의 외국학생이 국내학생과 동일하게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불하였을 경우 총 금액은 약 287,000,000원이다. 그러므로 D 대학이 장학금으로 지급한 액수는 1인당 등록금 면제율을 약 47%에 해당한다. 이들을 국적별로 살펴보

3) 본 연구에서 A, B, C, D, E 대학으로 표기한 것은 각 대학의 익명성 요청에 기인한 것임.

4) 232개 국내대학들 중에 국제교류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이를 4개 유형으로 정리하였음.(조사기간 2008년 5월~10월)

면, 중국이 가장 많은 38명이고, 그 외에 아시아계가 모두 10명 이하이다. 아시아계에서 중국이 59.37%를 차지하고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계가 92.18%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 1장에서 분석된 전체 유학생 입국에서 아시아계가 주도하는 것을 1개 대학의 사례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러시아와 아프리카계가 소수 참여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중국계에서 등록금 수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체 학비에 대비하였을 때, 중국계가 장학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표 3> D 대학 2008년 1학기 외국유학생 지원 현황(단위,원)

순번	성명	과정	국적	성별	등록금	순번	성명	과정	국적	성별	등록금
1	Liangn	학사	중국	남	1,840,000	24	Yu	석사	중국	남	2,433,000
2	Yu	학사	중국	남	1,840,000	25	Gopi	석사	네팔	남	0
3	Wang	학사	중국	남	1,840,000	26	Md.Mahmodol	박사	방글라데시	남	0
4	Cao	학사	중국	남	1,840,000	27	Balkrishna	박사	네팔	남	0
5	Liu	학사	중국	여	1,840,000	28	Kabir	박사	네팔	남	0
6	Yang	학사	중국	남	1,840,000	29	Xu	박사	중국	남	2,433,000
7	Quan	학사	중국	남	1,840,000	30	Amarbayar	석사	몽골	남	2,433,000
8	Wang	학사	중국	여	1,840,000	31	Zhao	박사	중국	남	2,433,000
9	Zhang	학사	중국	남	1,840,000	32	Wang	석사	중국	남	1,992,000
10	Ji	학사	중국	남	1,840,000	33	Zhao	박사	중국	남	0
11	Liu	학사	중국	남	2,328,000	34	Liu	박사	중국	여	1,992,000
12	Duan	학사	중국	남	2,416,000	35	Ndzi	석사	카메룬	남	1,992,000
13	Liu	학사	중국	남	2,213,000	36	Boldbaatar	석사	몽골	남	1,992,000
14	He	학사	중국	여	1,840,000	37	Li	석사	중국	여	1,992,000
15	Wang	학사	중국	여	1,840,000	38	Avarzed	통합	몽골	남	2,433,000
16	Ai	학사	중국	여	1,840,000	39	Yang	석사	중국	여	0
17	Wang	학사	중국	남	2,328,000	40	Li	석사	중국	여	2,577,000
18	Xu	학사	중국	남	2,328,000	41	Sayan	석사	러시아	남	0
학사 지원 소계					35,533,000	42	Tran	박사	베트남	여	2,748,000
1	Piao	석사	중국	남	1,992,000	43	Yan	박사	중국	남	2,748,000
2	Zhao	석사	중국	남	1,992,000	44	Lu	박사	중국	여	3,330,000
3	Liu	석사	중국	여	1,992,000	45	Pham	통합	베트남	남	0
4	Liu	석사	중국	남	1,992,000	46	Zhou	석사	중국	여	1,992,000
5	Renuka	석사	네팔	여	0	47	Kong	통합	중국	여	1,992,000
6	Jennifer	석사	필리핀	여	0	48	Yuan	석사	중국	남	1,992,000
7	Wang	석사	중국	여	1,992,000	49	Lu	석사	중국	여	1,992,000
8	Hou	석사	중국	여	1,992,000	50	Piao	통합	중국	여	1,992,000
9	Zhou	석사	중국	여	1,992,000	51	Lin	석사	중국	여	1,992,000
10	Jin	석사	중국	남	1,992,000	52	Mst.	박사	방글라데시	여	0

11	Jamganbazar	석사	몽골	남	1,992,000	53	Du	석사	중국	남	2,433,000
12	Shi	석사	중국	남	1,992,000	54	Mohammad	박사	বাংলাদেশি	남	2,433,000
13	Wang	박사	중국	여	0	55	Zhao	석사	중국	남	2,433,000
14	Anna	석사	러시아	여	0	56	Kuo	석사	카메룬	남	2,433,000
15	Li	석사	중국	남	1,992,000	57	Shen	석사	중국	여	2,433,000
16	Darima	석사	러시아	여	0	58	Yang	석사	중국	여	2,433,000
17	Nguyen	통합	베트남	남	0	59	Yu	석사	중국	여	2,433,000
18	Pham	통합	베트남	남	2,531,000	60	Ding	통합	중국	남	0
19	Jin	박사	중국	남	1,992,000	61	Vo	통합	베트남	남	2,433,000
20	Nguyen	석사	베트남	남	0	62	Rahman	통합	বাংলাদেশি	남	0
21	Batsuuri	석사	몽골	남	1,992,000	63	Zhang	석사	중국	남	2,531,000
22	Lu	통합	중국	여	1,992,000	64	Cao	석사	중국	남	2,531,000
23	Raut	박사	네팔	여	0			석박사 지원 소개			100,425,000
								총 계			135,958,000

출처: 조사 대상 대학의 요청에 따라 출처를 밝히지 않음.

<표 4> 국적별 분류 (2008년 1학기 기준)

국적	인원(명)	등록금 지출(원)
네팔	5	–
베트남	6	7,712,000
몽골	5	10,842,000
방글라데시	4	2,433,000
필리핀	1	–
중국	38	75,013,000
러시아	3	–
카메룬	2	4,425,000
총계	64	100,425,000

또 다른 E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자 (표5 참조). E대학의 경우는 사립대학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성공적인 수도권 대학 중에 우수한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우수한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교환학생제도, 장학금 제도 등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E 대학에는 전체 외국인 유학생이 243명이고, 이중에서 아시아계가 99명, 유럽계 75명, 북미계 53명, 오세아니아계 15명, 남미계 1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40.74%가 아시아계, 30.86%가 유럽계, 21.81%가 북미계, 6.17%가 오세아니아계 그리고 0.4%가 남미계로 나타나고 있다. 유학생 중에 아프리카계는 없는데,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학비 및 생활비 부담률이 높아서 신청하는 학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 대학의 경우에도 유학생 중에 아시아계가 가장 많고 그중에서 중국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4.55%이고 일본계가 39.39%를 차지하며, 싱가포르 국적이 6%를 차지하여 중국계와 일본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아시아권의 외국인은 유학을 목적으로 입국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 유학생 선발시에 제시하는 성적 장학금은 등록금의 70% 정도를 면제하는 것이고, 유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기본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70%의 비율은 대학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각 단과대학별로 영어권 학생일 경우에는 100% 성적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성적우수 장학금의 경우에는 성적이 우수해야

차기 학기에도 지속적으로 장학금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성적이 우수하지 않을 경우는 자비 부담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권의 학생들은 100%의 장학금을 못 받을 경우에는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장학금을 주는 타학교로 재입학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사례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름).

<표 5> E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및 지원 현황(2008/08년 기준)

대륙	국적별	인원(명)	등록금 지출(원)
아시아계		99	259,875,000
	중국계	54	
	싱가포르	6	
	일본	39	
유럽계		75	262,500,000
	영어권	10	
	비영어권	65	
북미계		53	185,500,000
오세아니아계		15	52,500,000
남미계		1	2,625,000
총계		243	763,000,000

위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D 대학이나 E 대학 모두 외국유학생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장학금제도를 활용하여 학생유치를 하고 있으며, 학생 유치의 대부분d; 아시아계 특히 중국계의 점유율이 높고,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영어권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이나 그 외의 국가들은 전체 외국유학생 입국자 현황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유학생 현황에 대한 분석

위의 전체 유학생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각 학교마다 아시아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그중에서도 중국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북미 유럽권의 학생 유치가 되지 않고 있는 학교도 있고(D 대학 사례), 또 다른 사례는 북미 유럽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전략적인 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 학교(E 대학 사례)를 살펴보았다. 외국인 유학생 입국 현황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계가 대량 입국하는 반면에 북미 나 유럽의 학생들의 상대적은 낮고, 각 대학의 현황도 위의 두 사례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국내 대학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현실이다. 장학 지원도 전략적으로 아시아계보다는 북미 유럽계에 지원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학이 아시아계의 우수한 학생보다는 북미 유럽계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또한 국내 대학들이 외국 유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등록금은 결국 국내 학생들에게 받은 등록금의 일부를 외국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외국 학생 유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 또 다른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는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국내 대학생들이 다수의 아시아계 학생들보다는 소수의 북미 및 유럽계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기반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이 현재 각 대학의 유학생 유치 현황과 목적을 살펴보았을 때, 구조적으로 불균형적인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고등 교육의 국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나타난 결과 이지만 동시에 정부의 정책적 원이도 무시할 수 없다. 즉 정부의 대학 평가 기준에 각 대학이 유학생 유치 비율이 반영되면서, 양질의 교육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유학생 유치보다는 우수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유학생 유치 구조로 흘러갔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양질의 교육, 교육적 목적을 위한 교류, 다문화 이해를 위한 학생 유치,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 달성과 같은 이상적인 목적보다는 정부가 시행하는 대학 평가에 얼마나 우수한 점수를 받느냐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III. 국내 대학생의 외국인에 대한 접근 방식

위의 국내 입국하고 있는 교육관련 외국인 현황과 다섯개 국내대학의 외국 유학생에 대한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시아계 유학생의 비율이 높고, 교수진 및 연구진의 경우에는 북미 유럽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화나 국제화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세계 경쟁적 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어떤 형태로든 외국인의 국내 유입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국내 대학의 경우에는 세계 대학들과 경쟁적 관계에 처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토양은 어떠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우수한 학생 유치를 위한 접근 방식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이다. 첫째는 국내 대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가 얼마나 되어 있으며, 대학이라는 장에서 국내 대학생들이 전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논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일부 선진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북미 유럽계와 기타 대륙 국민들에 대해 인종적 차별을 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 문화적 인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재정 2004, 김은미 외 2007). 예를 들어 서울시가 실시 한 “다문화 이해 관련 연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서울시민들은 북미 유럽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면 지역이 발전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응답의 66.7% 긍정적으로 대답한 반면에 중국인(조선족 포함) 혹은 몽골인의 경우에는 발전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80%를 넘었다(김은미 외, 2007).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 대학생과 교수진들의 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에서 나타난 다문화의 이해 부족은 북미 유럽 혹은 백인인 경우에는 영어를 잘 할 것 같고, 유색인종의 경우에는 영어를 못 할 것 같다는 선입견적 판단을 가지고 있다. 아래 사례연구의 방법은 인터뷰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은 국내 대학 중에 3개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생들을 무작위로 30명을 선택하

여 인터뷰를 하였고, 그중에 학생 11명의 대답을 녹취하여 기록하였다. 대학 교수는 2개 대학의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그중 6명 교수의 대답을 녹취하여 기록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사례의 경우는 2개 대학에서 2명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인터뷰 방식을 채택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1. 사례 연구

* 본 사례 연구는 국내 대학생 및 외국 유학생 일부의 견해이며, 구체적인 연구 조사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명시한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익명성 요청에 따라 A, B, C 등 알파벳으로 대상을 구분하였다.

가. 국내 대학생의 외국 유학생에 대한 견해

국내 대학생이 외국 유학생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에서 나타난 결과를 제시한다. 국내 대학생 1학년부터 4학년 대상으로 외국 유학생 중에 북미 유럽과 아시아 및 아프리카계 학생들 중에 누구에 더 호감이 가느냐는 질문에 북미 유럽 계가 더 호감이 간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이유를 인간적이고 친절하며, 합리적이고 개방적이라고 응답하였다. A 생의 경우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고, 아시아 사람들보다 친절하고 깨끗해 보여서 좋다” B 생은 “아시아계들은 일본 사람은 좀 다른데, 다른 아시아 사람들은 노동자 같은 느낌을 받는다” C 생은 “중국 학생들은 너무 시끄럽고, 자기들만 아는 것 같아서 싫다” D 생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온 학생들은 머리에 차도르를 쓰고 있어서 가까이하기 싫다” E 생은 “백인은 고학력일 것 같고, 아시아인들은 고학력이 아닌 것 같다” 등의 대답을 하고 있다. 일부 대학생들은 같은 과에서 공부하는데 백인다면 더 좋을 것 같고, 유색인종들은 머리가 나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같은 과에서 공부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다는 응답도 하고 있다.

D 대학의 국내학생 중에 아시아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A 학생은 “처음에는 좀 노동자 같아서 싫었는데, 같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무척 똑똑한 것 같아요. 영어도 잘하고요” B 학생은 “영어를 못할 것 같아서 같이 있는게 좀 싫었고요, 영어 발음도 백인들과 달라서 잘 못알아 들었어요.” C 생은 “저는 아시아 학생들과 말을 한마디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K 대학의 학생 인터뷰에서는 A생은 “아시아 학생들을 만나면 내가 도와 줘야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좀 피하게 되고, 백인은 영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화를 하고 싶다.” B 생의 경우에는 “백인들과 대화를 하면 친구들이 옆에서 보아도 좀 우월감이 생기는데, 아시아나 다른 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별로 인 것 같아 보여서 싫습니다.” C 생의 경우에는 “아시아 학생들은 중국과 일본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것 같고요.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온 학생들인 것 같아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학생들하고는 영어로 대화할 수 있어서 좀 가까이하고 싶고요”

대학생들이 백인과 유색인종 학생에 대한 견해는 영어를 잘할 것 같고, 못할 것 같은 것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유색인종의 경우에는 노동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백인의 경우는 똑똑하고 고학력일 것 같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의복이나 생활태도에서도 백인의 경우에는 우수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유색인종들은 지저분하고, 도움을 청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답변하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아시아계나 아프리카의 유색인종보다는 북미 유럽계의 백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교수들의 외국 유학생에 대한 견해

교수들의 견해를 들어 보았다. D 대학의 A 교수는 “아시아계 학생의 경우에는 암전하고 예의가 있어 한국의 문화에 어울리지만, 아직 학문적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백인 학생의 경우에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아시아계 학생들과 다른 것 같다.” B 교수는 “아시아계 학생들은 토론 중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영어 발음도 이상하고, 전공과목에 대한 지식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백인 학생들의 경우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다”

B 대학은 A 교수는 “아시아계 학생은 수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과제물을 제출하였을 때도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면 교정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좀 더 인간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B 교수의 경우에는 “영어권의 학생들이 수업에 좀 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아 좋은데, 한국 학생을 포함한 아시아계 학생들은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C 교수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섞여 있고, 중국 학생들은 그냥 한국 학생처럼 보여서 모르고 지날 때가 많다.” D 교수는 “중국 학생은 성적에 집착을 갖는 것 같다. 그래서 성적이 특별히 나쁘지 않으면 찾아오는 일이 없고, 성적이 조금 낮다고 생각하면 찾아와서 확인하는 경향이 높은 것 같다.”

교수들의 경우에는 아시아계이건 북미 및 유럽 학생이건 간에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하지만, 확실히 북미 유럽계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도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공통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는 단지 한 두 대학의 일이 아니고 대다수의 대학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는 사실 실효성이 많지 않고, 현재로서는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투자가 과연 국내 대학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교수들도 있었다.

다. 외국 학생의 국내 대학 교육 및 분위기에 대한 견해

1) A 군

미국에서 온 유학생이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부모님이 남미 쪽으로 유색인종이다. A 군은 지난 1년 동안 한국의 모 대학에서 100% 장학금을 받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음 학기에 한국을 떠날 계획이다. 그가 지난 1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지켜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영어와 경제에 모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미국하면 모두 백인을 떠올리고, 백인이면 누구나 영어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원에서도 미국 백인하면 영어를 아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인이라도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은 영어를 잘 못하는 것을 판단하다. 한국 사람을 영어와 백인을 동일한 관점에서 보는 것 같다. 지난 1년 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대학생들이 “외국인”하면 “백인”이라고 생각하고, 영어 선생님을 생각한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백인과 친구가 되려고 많은 애를 쓰는 것 같다. 백인에게는 매우 친절하게 대하고 가까이 하려고 무척 노력한다. 그러나 백인이 아닌 미국인에게는 가까이하기를 싫어하고 제3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대한다. 한국학생들에게 제3세계 사람은 “미개하고, 지저분하고, 믿을 수 없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교수들도 백인과 유색인종에 대한 태도가 유사하다. 한국의 이런 인종에 대한 차별 의식은 결국 서구에서 생산된 모델과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도 유색인종이라는 사실이고, 서구 사회에서 동일한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2) B군

뉴질랜드에서 온 유학생이다. 한국에 유학온 지 1년이 되었다. B 군은 지난 1년 동안의 학교생활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국 교수나 학생들은 나에게는 매우 친절하다. 어떤때는 귀찮을 정도로 말을 많이 시킨다. 캠퍼스에서도 학생들이 친절하게 다가와서 대화를 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외

국인이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고, 한국을 배우고 싶어서 열심히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학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질문을 많이 한다. 사실 일방적으로 질문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 수업시간에는 교수들이 주입식 강의를 하고 토론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시험도 모두 외워서 쓰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중간 고사 및 기말 고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뉴질랜드에서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시험을 본 일이 없다. 한국을 배우려고 왔는데, 지난 2학기동안 학문적으로는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다. 한국 사람들은 매우 친절한 것 사실인데, 내가 백인이어서 친절한 것 같다. 내 친구 중에 유색인종 친구들은 한국 사람이 별로 친절하지 않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여학생들이 무척 친절하다고 생각된다. 지금 한국에서 배우는 것은 문화적으로 뉴질랜드와 다른 점과 학교에서 100% 장학금을 주고 있어서 당분간은 남아 있을 예정이지만, 사실상 학문적인 소득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 장학금을 못 받으면, 졸업하지 않아도 한국을 떠날 생각이다.

3) 기타

기타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조용하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매우 신기하다. 아시아계의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만나면 인사는 하지만 대화를 깊이 해본일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반면에 북미 유럽계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은 매우 친절하고 자신들과 대화를 하려고 애쓰는 것 같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2. 사례에 대한 분석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의 교육열이 다문화나 외국 유학생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다르다. 영어와 미국 그리고 백인이 동일한 선상에 있고, 인종적인 관점에서는 백인이 미국을 대표하는 정통영어를 잘하는 것 같이 학생들에게 각인이 되어있다. 북미나 유럽의 국적을 가졌고 백인의 경우에는 모두 영어를 잘

해서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고 싶은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북미 유럽계일지라도 백인이 아닐 경우에는 제3세계 사람처럼 지저분하고, 미개하게 생각한다. 이는 단지 국내 대학생들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들도 한국 학생들이 자신들을 인종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이 외국인을 인종적인 측면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영어권과 비영어권 그리고 백인과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의 지원에도 북미 유럽의 유학생 경우는 국내 대학의 장학금 혜택에 따라 국내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인지를 아닐지를 결정하고 있었지,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차선이었다. 일부의 북미 및 유럽 출신 유학생들은 장학금 혜택이 없는 경우에 국내 대학에 남아있을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교수들의 외국 유학생에 대한 견해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북미 유럽 학생들은 눈에 띠기 때문에 신경을 쓰게 되고 아시아계의 경우 눈에 띠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 대학에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를 기초한 후에 국제화 물결에 따라 유학생 유치를 한 것이 아니고, 대학 내에서 다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또한 영어 교육열이 인종적 차별을 조장하는 기본적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본 인터뷰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 결과이다.

VII. 정량 및 정성적 조사 분석

위의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토대로 국내 대학의 유학생에 대한 처

우 및 국내 대학생들의 외국 유학생에 대한 호감도를 살펴볼 수가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아시아계가 95.24%이고, 북미 및 유럽계, 오세아니아계가 3.9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교육 종사자는 아시아계가 16.85%에 불과하고, 북미계 59.56%, 오세아니아계 6.65%, 유럽계 13.31% 아프리카계 3.46%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서 영어권에서 온 교육종사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유학생총과 교육 종사자총이 비영어권과 영어권으로 양극화 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대학이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에 따라 장학금 지원제도가 차등화 되어 있으나 아시아계에 대한 지원은 최소에서 중등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면, 영어권의 학생들에게는 중등이상 최대 지원을 하고 있다. 물론 학교마다 공식적인 내규가 존재하고 있으나, 희소의 가치 높은 영어권의 학생들이 우대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

<표 6> 외국 유학생에 대한 국내 대학 및 학생들의 처우 형태

	외국인 유학생비율(2007 기준)	외국인 교육종사자	외국인 유학생 장학지원 형태	국내 대학생의 외국인 학생 호감도	비고
아시아계	95.24	16.85	최소, 중간 (성적별 차등지원)	비호감	일본계는 긍정적
북미주	1.96	59.56	최고 (성적별 차등지원)	고도 호감	유색인종 중간 호감
남미주	0.35	0.15	최소, 중간 지원	비호감	백인은 호감
유럽계	1.89	13.31	최대 (성적별 차등지원)	고도 호감	유색인종 중간 호감
오세아니아주	0.07	6.65	최대 (성적별 차등지원)	고도 호감	
아프리카계	0.49	3.46	최소, 중간	비호감	

(* 최소 지원: 10%~30%, 중급지원: 장학금 30%~60%, 최대 지원: 60%~100% 지원)

국내 대학생들이 유학생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정량적 중심의 약식 조사활동에서 드러난 결과에 따르면 영어권과 비영어권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 영

어권의 학생들에게는 호감을 보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지만 비영어권의 경우에는 비호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물론 이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활동이 더 요구된다). 또한 피부의 색깔에 따라서도 호감과 비호감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 외에도 영어권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에서 수학하는 목적이 한국에 대한 호기심도 있으나, 장학지원혜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국내 대학과 대학생들은 다문화적인 접근이 아니고 단문화적 접근에 의하여 각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내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원이나 배려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기 보다는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과연 이러한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용이 합리적인가? 대학의 유학생 유치 배경 및 전략적 접근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2000년도 박태호 외, 2003년 노종희의 연구에서는 유학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었으나, 향후에는 사회 문화적인 입장에서 대학의 유학생 유치 및 전략에 대한 연구가 재고될 필요성이 있다.

V. 결론 및 제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첫째, 국내 유학생과 교육 종사자 간에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영어권과 비영어권이라는 구체적인 선이 그어져있고, 과도한 영어 교육 열기는 국내 대학에서 유학생과 교육종사자를 구분한다. 유학생을 비영어권과 영어권으로 구분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원 전략에 차등을 두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가 제시한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는 이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 내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고, 도리어

국익보다는 유학생 유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경쟁적 투자라는 부작용을 창출하였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의 국내 대학내의 적용에 있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재정검하고, 심도 있는 분석적 연구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둘째, 국내 대학생들이 다문화를 이해의 폭이 좁고, 영어 교육에 대한 집착은 국내 대학의 학풍을 폭넓은 지식 교류의 장을 만들지 못하고, 편견과 차별이라는 부작용을 재생산하고 있다. 다문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이미 많은 연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셋째, 국내 대학들이 국제화의 노력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사실이고, 이는 곧 국제사회에서 대학의 생존이 달려있는 사안임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정부에 의해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 제안되며 보다는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제가 정부에서 제시되었고 유학생 유치 비율을 맞추어야 한다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대학들이 무리하게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불필요한 투자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론적으로 국내 유학생 유치 관련된 정책이나 대학의 접근이 재조명되어야 함을 발견하였으며, 위의 초기 연구를 통해서 향후 추진되어져야 할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향후 정책 제안]

1. 국내 대학에 만연해 있는 다문화에 인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내 대학이 세계화와 국제화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다문화 이해와 협력할 수 있는 충분한 토양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내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상호 경쟁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영어 교육의 과열도 유학생 유치와 맞물려 과도한 경쟁을 유발 시켰다. 국내 대학이 국제화된

시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확산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초중고등 교육의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에서 다문화의 인식 및 이해를 위한 과정을 삽입하므로써 국내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해 편견과 차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의 이해를 기반으로 국내대학이 폭넓은 지식을 수용하고 논할 수 있는 장임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며, 영어만이 모든 학문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선입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 유학생들의 잠재력이 국내 학생들과 선의 경쟁을 통해서 한국의 우호자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방안이 필요하다.

2. 한국이 아시아 교육 협력을 할 수 있는가?

이 연구에 의거하면, 본 질문의 대답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문화적 토양 형성 미흡, 대학의 특화된 전문성 확보 미흡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지리적인 요충지로 오랜 세월동안 아시아 국가에서 자리를 잡았고,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지식과 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대학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조성하고 있는 상호 불이익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학교마다 분야별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들은 이미 생존을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으나, 그 전략적 접근이 임기응변식이 아닌지 재점검하여 전략적 수정 및 보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이 아시아 교육 협력을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 그 요소들을 확인해야한다. 이는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양질의 교육으로 특화할 수 있는 전문적 영역을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 간에 경쟁적인 입장이 아니고 상호 협력하여 국내의 모든 대학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 조사에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자료공개 및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은미, 양옥경, 이해영.(2007). 서울의 다문화 발전을 위한 사회소통과 적응연구. 시정연 2007-PR-20.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홍운, 김두정.(2007).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교육적 과제. 인문학연구. 34(3):153-176.
- 노종희. (200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국가별, 지역별 대학 마케팅 전략. 교육정책연구 2002-일-18. 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부).
- 박남수.(2000) 다문화 사회에 있어 시민적 자질의 육성: 사회과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모색. 사회과교육.33:101-117.
- 박태호. (1999). 대학의 국제화 지원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연구. 교육부정책연구보고서. 교육부(교육과학부)
- 오지섭.(2007). 세계화 시대 한국문화의 정체성. 인간연구. 14:7-33.
- 이재정.(2002).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모색. 민족연구. 11:103-116
- 장인실.(2008).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 교육과정 모형 탐구. 초등교육연구. 21(2):281-305.
- 정기섭. (). 다원주의적 교육학에 관한 연구. 개인연구.
- 진은영. (2007).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인권. 철학, 95:255-283.
- 동아닷컴.(2007). 대학이 가짜 中 유학생 유치 등록금 장사.(2008.11.09. 18:10 접속)
- 조선일보.(2000). 국내대학 외국유학생 유치기반 부실. (2008.11.09.18:20접속)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10/200010290037.html>
- 한국경제.(2008). 유학생 10만 유치, 핵심은 우수인재.(2008. 11. 09. 18:00접속)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80400261&sid=011710&nid=103<ype=1>
- 충청투데이.(2008). 中 어학연수생 출석부 조작 체류연장 대학직원들 검거. (2008.11.08 접속)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007#>.
- 충청매일.(2008). 어학연수생 출석조작 비자 연장, 편입 도움.(2008.11.08. 접속)
<http://pdf.hvnews.co.kr/2008/09/09/20080909-01.pdf>.
- 오마이뉴스.(2007). 몰려오는 중국대학생들 한국에서 공부하자. (2008.11.08. 접속)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54425.